

## <수능완성 현대문학 주요 작품 문제 해설서>

1.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가)는 '겨울보리', '겨울 나무들' 등을 소재로 하여 시련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빨밭', '퍼덕거리는 것들'(바다 생물들) 등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힘들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는 봄 경치를 매개로 하여 자연을 즐기는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의 공통점은 자연을 매개로 하여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 [출제의도] 시의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가)는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처럼 겨울 나무에서 생명력을 잃어 내고 있다. (다)는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하구나.'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이 지난 뒤 봄기운이 완연한 산과 들을 노래하고 있다. (가)의 경우 '겨울→봄'과 같은 계절의 순환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계절은 변화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가)와 (다) 모두 계절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가)에서는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면서 온다', '~르 줄 모르는 이는 / 친구가 아니다' 등과 같은 시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반복 구조는 '생명'과 '진실'의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정서(태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풀이] ① 냉소적인 어조가 아니라 단정적인 어조이다. 아울러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4. [출제의도] 색채 이미지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보기>를 참고할 때, ㉠은 (나)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력을 품고 있는 색채 이미지로 쓰이고 있다. ㉡에서 '복숭아밭의 검은 줄기'는 '싱싱하다'고 한 것을 통해 '검은'이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에서 '검은'은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을 암시한다.

㉡에서 '검은'은 '죽음'을 의미한다.

5. [출제의도] 색채 이미지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다)의 화자는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함)처럼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이를 분주한 농촌의 일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시적 공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나)의 '포구'는 '빨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다. 여기서 들려오는 '무위한 해조음(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자연의 파

도 소리)'을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여길 단서는 시 속에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곳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현실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의 '빨밭'에는 '퍼덕거리'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사람들이 '떡이를 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7. [출제의도] 시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세 편의 시 모두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는 화자가 어둠 속에서 '풍화작용'하는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고, (나)는 화자가 '똑똑한 체질도 떠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으며, (다)는 화자가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8. [출제의도] 각기 다른 시의 시어들 사이의 공통된 기능을 찾는 문제이다.

정답: ①

'지조 높은 개'는 어두운 현실을 거부하는 존재로, 시적 화자에게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백골'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나아가도록 자극과 깨우침을 주고 있다. '말 못하는 식물'은 1년의 감나무, 붉은 홍시와 통하는 것으로 시적 화자가 자신과 대비하여 보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두 시어들이 지닌 공통적 기능은 '자기를 인식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한 편의 시를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읽어 낼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아, 가을!'이라는 마지막 행에는 화자의 정서가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홍시와 대비되어 성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화자의 심정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현실적 이익 추구를 벗어난 탈속의 세계와는 관련이 없다. ① 자연의 섭리로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아프게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성장(성숙)을 위해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② 선명한 색채 대비로 시각적 이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며 시간의 흐름과 감이 익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③ '어느새'는 '오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므로 자연스러운 우리말 호흡으로 읽으려면 '조금씩 변하더니 / 어느새 붉은 홍시로까지 오게 되었더니'로 해야 하지만, 일부러 위 행에 붙여 써서 다음 행에 나오는 '붉은 홍시'의 의미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④ '하늘에 자기 모습을 열심히 비추는 것'은 감나무가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 동시에 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자세가 되는 것이다.

10. [출제의도] 시를 감상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해설]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은 열정을 가지고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만 하는 시인(화자)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일상에 매몰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화자가, 주변의 미미한 존재인 하루살

이를 관찰하고 그에 대비하여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에게 하루살이의 움직임은 조금씩 그 의미를 달리 해가고 있다. 처음에는 곧 죽을 조그만 벌레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미친 춤'으로 보이며 자신이 일상을 안간힘을 써서 살아가는 것과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이 하루살이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움직임이 '유희', 곧 즐겁게 노는 것으로 달리 보이게 된다. 곧 죽을 하루살이지만 쉬지 않고 '되돌아가고 되돌아오는' 것을 보니 '소리 없이' 기고 나는 벌레 입에도 자꾸 신경이 쓰이며 그 움직임이 그저 단순한 '되풀이[反復]'가 아니라 '본래 상태로 되돌림, 자꾸 고침[反覆]'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은 단순한 반복(反復)이 아닌 '본래 상태로의 되돌림이나 고침'과 관련 있는 삶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 상태와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하루살이의 움직임이 '눈이 부시어 어릿어릿할 정도로 찬란하거나 화려함'으로까지 인식된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하루살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연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화자 내면의 소리를 구분 짓는 줄표 속 언급이 일률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 행에 배치되어 있고 각 연의 끝에 하루살이와 관련된 중요한 시어를 영탄형으로 써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면들이 시 전체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답 : ②

(가)에는 '~나다'를 통해 영혼의 성숙을 추구하려는 화자의 다짐이, (나)에는 명사형 종결과 '~리라'를 통해 본질적 자아를 추구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다)에는 '~노라'를 통해 궁핍한 현실 속에서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12. [출제의도] 관점에 따라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답 : ①

관점<A>로 작품을 이해했을 때 '칼날'은 안정된 삶에 균열을 일으키는 요소이므로 '위협에 대항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답 : ⑤

(나)는 '회의(懷疑), 애증(愛憎), 영겁(永劫), 허적(虛寂)' 등의 한자어와 관념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생경한 느낌을 주고 있다.

14. [출제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답 : ②

(나)의 '나'는 극한적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추구하는 근원적 자아이다.

15.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답 : ③

㉠은 '다툼 것이 없는 것은 자연뿐이구나'로 해석되므로 이를 운명론적인 삶의 태도와 연결 짓기 어렵다.

16.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답 : ⑤

㉡의 '온포(溫飽)'는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7.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상황과 인물의 심리 변화를 이해한다.

정답 : ①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서간도로 이사했지만, 정작 서간도에서의 삶은 기대했던 것만큼 평안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고향에서 '그'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 ③'그'는 부모님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는다. ④'그'는 벌이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⑤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다가 고국 산천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 일본을 떠났다.

18. [출제의도] 특정한 내용이 작품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사적 기능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정답 : ⑤

[A]는 '나'가 들은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형성된 내용이다. '그'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의 내용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농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농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암울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A]의 뒤로 이어지는 '그'의 서간도행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19. [출제의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여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 ①

오랜만에 고향을 둘러보러 온 '그'는 백여 호 살던 동네가 완전히 없어진 사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으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괴로움이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향 상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많은 농민들이 땅을 버리고 유랑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일제의 수탈이 심각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현실 앞에서 아쉬움과 허탈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분노 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20.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 ③

③ [A]는 '그'의 가족이 서간도로 이사를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등 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처한 힘겨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은 나오지 않는다.

② '그'와 가족들이 처한 삶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상상적 공간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갈등 상황을 세부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그'와 가족들이 처한 환경의 변화는 서술되어 있지만, 이 변화에 맞추어 인물의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2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 ⑤

⑤ '그'가 열일곱 살에 가족들과 서간도로 이주한 것과 '그 처녀'가 열일곱 살에 유곽으로 팔려 간 것은 동양척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지주행세로 인한 가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향이 그들에게 더 이상 삶의 터전이 될 수 없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① '그 처녀'는 열일곱 살에 유곽으로 팔려 간 후 고향에 되돌아왔을 때 집도 부모도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가족들과 재회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그’는 열일곱 살에 가족들과 함께 서간도로 이사를 갔으므로 가족들을 등진 것이 아니다.
- ③ ‘그’와 ‘그 처녀’가 재회한 시기에는 이미 마을이 모두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재회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그 처녀’는 ‘그’보다 두 살이 많으며, ‘그’의 열일곱 살에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 처녀’의 열일곱 살에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뒤에 일어났으므로 원인이 될 수 없다.

2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 ⑤

- ⑤ ㉔은 일제 강점기 ‘그’와 ‘그 처녀’가 살아온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슬픔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그’의 거부감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고향은 사람도 개도 없고, 살던 집터도 사라진 상태이다. 한편, 인물이 ‘흥’이라며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곧이어 한숨을 쉬는 것으로 보아 답답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라는 말에 ‘그렇겠지요.’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으며, ‘구 년 동안이면 펍 변했겠지요.’에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혹 구경했는기오?’는 자신은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고향의 변화에 대한 당혹감을 표출한 것이다.
- ④ ‘그’가 ‘그 사람’과 까닭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 되묻는 질문이므로 ‘그’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함을 드러낸 말이다.

2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 ①

- ① 전토가 신작로로 변했다는 노래의 내용은 전토에서 생존을 해나갔던 과거의 삶이 더 나은 삶이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역둔토를 파먹고’ 살던 과거의 기억은 현재와 달리 평화롭게 살아갔던 기억이다. 따라서 노래의 내용은 과거가 현재보다 더 평화로운 삶이었다는 것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말마디나 하는 친구가 감옥소로 갔다는 노래의 내용은 일제의 감시하에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뜻한다. ‘못 살겠다’는 소리가 자주 오르내린 것은 동양척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부당한 행세 때문에 가난으로 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노래의 내용이 고향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친구의 부자유한 처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담뱃대나 떠는 노인이 공동묘지로 갔다는 노래의 내용은 우리의 따뜻한 이웃들이 죽어 민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양상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담뱃대나 떠는 모습을 무능력한 구세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때문에 고향이 피폐해졌다고 볼 수 없다.
- ④ 유곽으로 가는 계집을 떠올리는 노래의 내용은 ‘그 처녀’가 유곽으로 팔려 가던 이야기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그 처녀’의 불행은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라고 탄식하는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 ⑤ 노래의 전체 내용은 상실감을 극복하는 모습을 다룬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대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없다.